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32주일 2016.11.6.(다해) 제2024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불로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 (루카 20,38)

죽은 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 성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부활의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성자의 말씀과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청하며 미사를 시작합니다.

제1독서 2마카 7,1-2,9-14 **제2독서** 2테살 2,16-3,5 **복음** 루카 20,27-38.

입당송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화답송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위령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부활의 삶,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

임종필 프란치스코 신부 | 교구 청년국장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부활 후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이 세상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천지창조주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보내신 당신 외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활,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반대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서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의 통치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믿도록 강요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분은 한 알의 밀알로서 더 많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

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요?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의 순간에 우리 마음도 진한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선수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기에 감동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와 다르게, 내가 아니라 너를 빛내려고 숨은 노력과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들이 교회를 빛내고 주님의 현존을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고,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공부야 남의 허물을 뒤집어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마태 7,12)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타적인 삶이 결국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부활로써 우리 삶이 온전하게 사랑과 용서의 삶이 되어야함을 보여주셨고, 기쁨과 평화의 삶이어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과 용서, 참 평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삶,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

찬미받으소서

세대와 세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중호 분도 신부 | 정평본당 주임

지난달에 난데없이 몇 번이나 땅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당한 지진이라 많은 사람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놀라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다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말로만 듣던 지진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새삼스레 다가왔습니다. 저희 성당은 다행스럽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당인지라 내진설계가 지진 강도 7.0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교우들에게 혹여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불안한 마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당황스럽다면 성당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들 조용한 미소로 화답하셨고 조금의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지각 판의 에너지가 어딘가로 흐르고 모여서 지진이 되고 화산이 된다니요. 어쨌든 이 공동의 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진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도 모두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큰 소나무 아래 막 싹을 틔운 어린 소나무부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쓰러져 버린 고목들도 만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를 낳아 주신 부모님과 그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나는 수없이 많은 조상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몇 세대 이전 조선 시대의 땅이 다른 땅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지금 동시대의 연결을 넘어 옛날 세대와 지금 세대의 연결, 또 지금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연결로 이어지겠군요.

사람이 자기완성에 더 가득하고 더 쉽게 도달하도록 하는 모든 사회생활의 조건들을 두고서 공동선이라고 합니다(『사목현장』 26항 참조). 사람이 각자 충만한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요. 안정적인 임금과 노동 조건, 사회적 보장, 깨끗한 환경 등등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공동선은 미래 세대와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 역시 후손들에게 이 땅을 귀하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땅을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 말이지요. 핵발전소를 통해서 얻는 전기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지만 남겨지는 핵폐기물을 감당해야 할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이 공동의 집에 켜켜이 쌓여 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줄여야 하는지도 자명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찬미받으소서』 159항).”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생태적 회개가 요구되어 집니다. 생태적 회개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필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조동혁 아우구스티노 신부 | 장량본당 보좌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체 게바라의 남미횡단여행을 그린 이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처음 영화를 본 것은 십년 전이었고 최근 우연한 기회에 DVD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어디로 달리는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며 복잡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처럼 살아 노년을 맞이했다면 젊은 시절의 꿈과 비전을 굽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꿈이란 남보란 듯 성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지독한 삶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기꺼이 그 못나고 뒤틀리고 험겨운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하지만 늘 가슴속엔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그대, 지금 가슴속에 꿈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가?” 체 게바라가 남긴 말을 떠올리며, 영화를 되새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함석헌 목사의 표현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너는 과연 꿈을 지닌 채 살고 있는가?’ 사실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눈앞의 작

은 일에 연연하며 남들로부터 비난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부끄러운 모습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나? 체 게바라도 예수님처럼 개인과 더불어 구조적 문제를 고민하였기에 그에게서 내 꿈과 비전, 그리움을 보았다고 말하기 위해서인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종류의 착각이라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가능한 것을 간직하고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지상에 사는 인간이 하늘을 꿈꿀 자격을 얻은 데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쯤 자신과 시대 앞에 당당해 질 수 있을까요? 참 사랑이 참 해방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화를 보며 인간을 향한 애정과 자유를 향한 열정을 지닌 체 게바라의 모습에서 참 사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못난 모습을 간직한 채 전전공공 살아가는 제 모습 또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사람에게 대한 가치와 사랑을 믿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삶의 여행을 계속한다는 것, 그리하여 평생 깨어지지 않을 꿈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억할만한 친구의 전언 한 가지. “체 게바라가 지금 한국에 있어도 그는 게릴라전을 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시대에 제2의 체 게바라는 톤즈의 이태석 신부님이야.” 그래서 더더욱 기억할만한 영화가 아닐까요? **필문**

열두 사도 이야기

절망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인, 유다(타대오) 사도



성 유다 타대오 사도, 엘 그레코, 톨레도 대성당

사람들은 유다라 하면 흔히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또 한 분의 유다 사도가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고 성경에도 그 이름이 매우 많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루카 6,16; 사도 1,13)로,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는 타대오(마태 10,3; 마르 3,18)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다두’라는 세례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길 겁니다. ‘다두’는 타대오를 한자식으로 표기해서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두 사도 명단 외에 이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요한 복음 14장 22절로,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라고 표현되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구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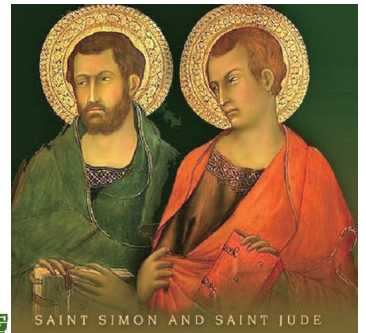
이밖에 성경에서 성인에 관해 언급된 것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유다가 던진 질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자 유다 사도는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요한 14,19~22)라고 여쭙었습니다. 왕이 되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시니 그 절망감을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18세기부터 가톨릭 신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다 성인에게 전구(轉求)를 하는 전통이 생겨났는데 바로 이러한 언행에 따라 성인을 ‘절망에 빠진 이들의 수호자’로 공경 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다 사도는 시몬 사도와 같은 열혈당원 출신으로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시몬 사도가 톱질을 당해 순교하신데 비해 유다 사도는 창에 찔렸거나 도끼로 참수형을 당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성인의 유해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의 왼쪽에 있는 부속 제대들 중 하나인 성 요셉 제대 아래에 이장되어 안장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시몬 사도와 함께 활동하시고 함께 순교했다는 전승에 따라 축일도 같은 날인 10월 28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분을 세례명으로 쓰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과 구분하기 위하여 다른 이름인 타대오를 사용하는데, 현재 우리 대구대교구의 제10대 교구장이신 조환길 대주교님의 세례명이기도 합니다. **필문**



교구 행사

■ 마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행사



사진제공 : 가톨릭신문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장신호 보좌주교는 10월 30일(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마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 가톨릭 문인회 글과 그림전

2016년 대구 가톨릭 문인회(담당 : 정태우 신부) 글과 그림전이 10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교구청 내 안익사 일대에서 열렸다.

■ 상해한인성당 20주년 기념 미사



장신호 보좌주교는 10월 23일(일) 상해한인성당 20주년 미사 및 견진성사와 상해포동한인성당 견진성사를 거행했다.

■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 전시회

11월 1일(화)부터 5일(토)까지 교구청 내 안익사 일대에서 2016년 대구 가톨릭 사진가회(담당 : 홍창익 신부)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



영화 『오! 마이파파』 개봉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소 알로이시오 신부의 완전한 사랑이야기

개봉일: 11.10(목) / 상영관: 동성아트홀

※ 본 주보 지참 시 1,000원 할인 (현장 발권에 한함)

2017 신앙다이아러리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2017년도 대구대교구 신앙다이아리가 출시됩니다.

판매가: 12,000원(선 주문시 10,000원) / 예약기간: 10.24(월) ~ 11.11(금)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숨겨진 것은 드러내기 마련이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11월 7일(월) 10:30 범여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1월 7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9일(수) 11:30 계산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1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9일(수) 19:30 교구청 별관 302호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1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수능기원미사	11월 15일(화) 11:00 성모당

성소 | 피정

11월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12(토), 26(토) 14:00

장소: 한국관구(서강대 옆)

문의: 김스테파노 수사, (010)6245-1608

11월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11.12(토) 15:00~18:00

장소: 남대영기념관 4층(현충로역)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청소년·형제들

문의: 이마리오 신부, (010)7507-6005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3(일) 14:00~16: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경당

문의: (010)5033-9302

<http://www.columban.to>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산내 치유 피정: 11.15(화)~16(수)

시니어 피정: 11.22(화)~23(수)

장소: 효령하늘집

문의: 동천성당, (054)382-0091

11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11.14(월)~15(화)

주제: 외딴 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포)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하반기 성소 식별 피정

기간: 11.26(토)~27(일)

장소: 툇짚포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2만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제47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11.25(금)~27(일)

장소: 루하피정센터(오순절평화의수녀회)

문의: (010)3758-3572, 홈페이지 참조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한라산, 미사, 기도, 강의

기간: 11.15~18 / 11.24~26 / 11.28~30

12.2~5 / 12.8~10 / 12.30~1.2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6년 대상자 /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정규 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레지오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28회 대구시청소년수련 영어캠프 모집

기간: 12.31(토) 출발(4주, 8주)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기간: 2017.1.7(토)~2.19(일) 6주

장소: 필리핀팻상한마리아의아들수도원

대상: 초4~중2 / 문의: (010)4442-4982

주최: 마리아의아들수도회

<http://blog.naver.com/cficengcamp>

이스라엘·동부지중해 성지순례 크루즈

기간: 11.27(일)~12.10(토) 13박 14일

장소: 이스라엘, 이태리, 그리스

경비: 내측 498만원, 발코니 548만원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신부 인솔)

주관: 일본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005-9028

“북유럽4국 & 발틱3국”
2017년 6월 26일(월) 출발 / 12박 13일
“일본 성지 순례”
2016년 11월 23일(수) 출발 / 3박 4일
T. (053)253-3399
조 힐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우리아이 아플면?
한영한마음 아동병원
손찬락(라파엘) 병원장/의학박사

평 일: 아침 9시 ~ 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9시
주말: 휴진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2 (삼성역 3번출구)
문의: 02-552-3222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김기종임/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이타워 4F

목조건원주택 분양/시공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라인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 원장 원 중 훈 (바오로)
피부질환 아토피/알레르기/사마귀/티눈/건선/무좀
피부미용 여드름/흉터/기미/잡티/모공/보톡스/필러/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성교회)
1호선 삼성역역 3번출구 T.053) 651-8800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발아플면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시간신경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행사 | 모임

가톨릭음악인협회 대림 성탄 세미나

일시: 11.6(일) 14: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제7기 아카데미수강생 수료 전시회

기간: 11.9(수)~11(금)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제9기 아카데미수강생 모집
주최: 전례꽃꽂이연구회
문의: (010)3544-0268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6회 7080 밥콘서트

일시: 12.10(토) 17:00
12.11(일) 14:00, 17: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 1만원 후원: 매일신문, 교구 청년국
문의: (010)9577-7819 / (010)4509-7016

교육 | 모집

대구ME주말-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6차 ME주말: 11.18(금) 19:00~20(일)
쇄신9차: 12.3~4 ME주말체험부부대상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요셉발건강회(발은 제2의 심장)

발을 알면 우리의 건강이 보입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법
일시: 매주(토) 14:00~16:00

장소: 가톨릭문화관(교대역 3번 출구)
문의: 476-7774 / www.footfather.com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성가반주법, 우쿨렐레,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성인생활영어회화, 댄스·유화·수채화 / 문의: 476-6211(1호선 교대역)

11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 신앙 특강

일시: 11.19(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공격성의 다양한 얼굴들
강사: 김성희(가타리나) 교수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2017 평신도·수도자 신학석사과정 모집

원서접수: 10.31(월)~11.11(금)
학위취득: 논문석사과정 / 교과석사과정
주최: 대가대 신학대학원(야간)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2017 대가대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0.31(월)~11.11(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신설)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2017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1.14(월)~18(금) 9:00~16:30
대상: 2010.1.1~12.31 출생아동
조기입학자 및 취학의무유예자 가능
학교교육 설명회: 11.8(화) 10:30
문의: 효성초등학교, 720-5500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정이슬, 박달진(베네딕도)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7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전서류접수: 10.31(월)~11.16(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1차 순번추첨: 11.28(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차 순번추첨: 11.28(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 주보 광고 순번추첨일이 11.21(월)에서 11.28(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는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테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달성피부과
개원 30주년
확장 개원
BF PNT영양치료실/화상, 흉터크리닉
1F 아토피센터/대상포진통증크리닉
2F 오프토피스킨케어/여드름크리닉
3F 레이저/보톡스/리프팅 동안센터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번출구 ☎ 566-4333

치질수술 내시경 건강검진
하는 병원
대형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임원실
www.hangmuns.com
늘시원한 안대방병원
노성균 대구아미르의원 959-7175

등대꽃
건강방송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이 카타리나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효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성모발현지(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발칸 성지순례 모객 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